

『평화를 향한 아시아의 도전 - 아시아 민주화운동사』 발간



『희망세상』에 기획 연재되어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일으킨 아시아 민주화운동사가 『평화를 향한 아시아의 도전 - 아시아 민주화운동사』(박은홍 외 지음, 나남, 15,000원)란 이름의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

과거 우리나라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민주화 과정들을 보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세계시민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함께 생각해 본다.

아시아 총 18개국을 다룬 이 책은 크게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으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아시아 각국에서의 민주화 과정을 돌아보고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 민주화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천안문으로 상징되는 중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중국과의 대립, 독재정권의 폭압 속에 진행된

대만의 민주화 과정을 살핀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쿠데타의 나라'로 기억되는 태국과 여전히 반민주주의가 건재한 말레이시아, 첫 직선제 대통령 선거 이후 민주주의로 순항중인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독립하여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동티모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민주화의 길을 연 필리핀, 군부에 대한 승려들의 시위와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민주화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버마, 여전히 킬링필드의 비극이 계속되는 캄보디아, 제 10차 공산당대회에서 많은 변화의 가능성을 보인 베트남의 상황이 그려진다.

남아시아에서는 한 번도 군부쿠데타를 겪지 않았고 선거가 중단된 적 없는 세계 최대 인도 민주주의의 한계를 짚어보고, 살얼음판 위의 스리랑카 휴전 상황과 군부독재 하에서 테러의 온상이 된 파키스탄, 국왕의 권력 독점으로 군주제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네팔의 상황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중동에서는 이라크전쟁 이후 이라크 민주화의 달성을 위한 여러 진단과 정책들을 검토하고, 세계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과 테러의 고통을 겪는 팔레스타인과 아프가니스탄의 상황과 문제 원인을 살펴봤다.

『동아시아와 한국 -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 발간

사업회 연구소는 『동아시아와 한국 -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조희연·박은홍 편, 선인, 13,000원) 연구서를 발간했다. 이 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성공회대 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6월민주항쟁 20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인 '동아시아 민주주의와 한국의 역할'에서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지난 1997년 통화위기에서 경험한바와 같이 동아시아는 이제 단순한 지리적 범주가 아닌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히 연결된 공간이다. 이 책은 이러한 이해 위에서 각국에서 민주주의 문제와 사회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활동가형 학자들과 연구자들의 논문을 통해 동아시아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책의 구성은 1부와 2부에서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사례를 통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위기'를, 3부는 아직 최소한의 민주화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버마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서장과 결론에서 조희연·박은홍 교수는 동아시아의 사례와 여전히 소용돌이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와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규명하면서 민주화 이론의 심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석틀의 구축을 한편으로 하고, 아시아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민주주의의 사회화'와 '사회적 아시아(Social Asia)'를 향한 실천적 프로젝트 구축의 중요성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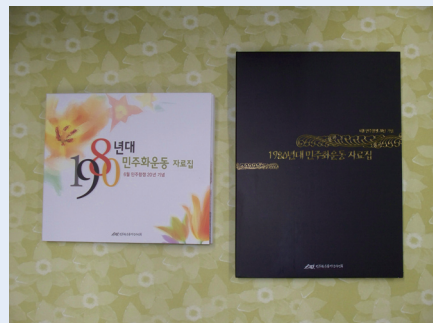
1980년대 민주화운동자료집(DVD) 제작

자료관은 지난해 12월 <1980년대 민주화운동자료집(DVD)>을 발간하였다. 지난해 6월항쟁 20년을 맞아 6월항쟁의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및 '3대 사업방향 5대 핵심 사업'을 실시하였고 자료집은 이 핵심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 제작되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자료집(DVD)>은 '발간 인터뷰', '사업회 소개', '87년 6월항쟁', '민주화운동자료 검색'으로 구성되었다. '발간인터뷰'는 사업회 이사장의 동영상 축사와 6월민주항쟁20주년사업추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의 동영상 발간사가 수록되었으며, '사업회 소개'는 사업회의 간략한 소개와 소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87년 6월항쟁'은 6월항쟁의 멀티미디어 자료(사진, 동영상)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사진을 활용한 '포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자료'는 1980년 5·18민중항쟁으로부터 1989년까지 전국적인 기초 자료를 분류하여 약 6,600여건(약 13,000여면)의 자료를 수록하였고, '연도, 월, 문서유형, 기증자' 선택을 통한 검색과 '키워드' 입력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향후 이 자료집의 검색 기능을 강화한 웹 버전을 별도로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문의 자료팀 02-3709-7619





안양 전진상복지관과 독일사료수집위원회 소장 사료 기증

지난달 9일(수), 10일(목) 양일에 걸쳐 안양 전진상복지관에서 39년 동안 보관 중이던 사진, 각종 문서, 교육용 슬라이드 필름, 영사 필름, 영사기 등 다양한 물건사료를 포함한 약 40여 박스의 소중한 사료를 기증 받았다. 안양 전진상복지관은 지난 1969년 근로자 회관으로 문을 열어 39년에 걸쳐 안양 지역에서 노동, 여성, 소외 계층, 이주민 복지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복지관은 국제가톨릭청년회의의 지원으로 운영되어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지역 사회의 등불이 되었던 소중한 곳으로 지난해 12월 31일(월)자로 폐관되어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안타깝게 했다.

또한 독일사료수집위원회에서는 유럽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료들을 모아 기증했다. 주로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이희세 선생이 활동하며 보관해오던 귀중한 사료들이다. 이중 3·1구국선언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 100만 명 서명을 위한 불어 대자보 원본, 1977년 프랑스에서 있었던 한국 민주화를 위한 기자회견 시 사용했던 현수막, 기자회견 사진, 윤이상 선생의 친필 격려 편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학생들이, 사료관 견학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학생들이 지난달 11일(금) 한운석 교수의 인솔로 사범회 사료관을 견학하였다. 8명의 예비 역사 교사들은 한국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사범회의의 활동 사항과 사료관에서 수집한 사료들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견학은 사범회 소개, 주요 핵심 사료들의 실물 확인과 의미 전달, 열람 및 보존서고시설 견학 등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사범회 사료관은 한국 현대사와 기록학 연구자,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인 현장체험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상변주곡』등 발간물 제작, 배포

기념사업팀은 지난해 추진했던 사업 내용을 담은 단행본과 자료집 5종을 발간, 배포하였다.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대규모로 진행된 6월민주항쟁 20년 사업과 관련한 총괄보고서, 지역 행사, 보도자료집 등을 묶은 <6월사업 결과보고서, 1질 6권>와, '민주화 20년, 문화 20년'을 다각도로 조망한 기획 강좌 『상상변주곡』 단행본을 펴내는데 이어 국제협력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연구보고서 <국제협력사업 중장기 발전방안연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가이드북 시리즈 발간을 준비하며 만든 한국 민주주의운동 자료집 <선거와 시민사회>를 발간하였다.

또 2006년에 제작한 악보집 1(1977~1986년 편)에 이어 민중가요 악보집 2 『노래는 멀리멀리』 (1987~1989) 1,000부를 제작해 그 중 700부를 독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문의 기념사업팀 02-3709-7552

‘국제협력 자문단 구성을 위한 국제회의’ 열려

사업회는 국제협력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앞두고 ‘국제협력 자문단 구성을 위한 국제회의’를 이달 2일(토)부터 3일(일) 이틀 동안 서울 중구 ‘바비엔 교육센터’에서 개최한다. 이 회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주의·민주화운동을 실천해온 국내외 민간단체, 기구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 사업회가 수행하여야 할 국제협력사업의 방향과 좌표를 설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Bruno Kaufmann(IRI-Europe 대표), Kinhide Mushakoji(오사카 정법대 아·태센터 소장), Cynthia Yuen(중국 농촌재건협회 사무총장) 등 11명의 해외 인사가 참가해 직접 민주주의, 인간안보, 지방자치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과 함께 이삼열(유네스코 사무총장), 김영란(제주도 여성정책특별보좌관) 등 20여 명의 국내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회의 국제사업 계획과 협력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펼친다.

문의 기념사업팀 02-3709-7562



태안 기름유출 현장 자원봉사 활동

사업회 임직원과 시민단체 활동가 50여명은 지난 달 18일(금) 기름 유출로 고통 받고 있는 충남 태안 지역을 방문,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다. 이날 봉사활동에서는 기름으로 뒤범벅이 된 바닷가 현장에 돌과 바위를 닦아내는 작업을 했다. 많은 이들의 손길이 필요한 일에 사업회 임직원들은 공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기로 했다.